한국 신약기술 개발기반 "세계 주목"

SK·C지노믹스 해외 학술지에 잇따라 소개 … 국내기업 위상 높여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 학술지에 잇따라 크게 소개됐다.

바이오벤처기업 크리스탈지노믹스(대표 조중명)에 따르면, 미국 화학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TCAW(Today's Chemist at Work)가 2004년 1월호에서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세계적인 신약 발굴기업으로 소개하고 구조 기반의 신약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4페이지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TCAW는 독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전문 저널로, 국내외 산·학·연과 정부 기관의 여러 화학 전문인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TCAW는 특히 비아그라를 비롯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체내 작용원리를 세계 처음으로 규명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연구 결과를 집중 소개했으며, Structural Genomix와 Syrrx, Astex 등 미국과 영국의 유명 신약발굴 기업와 함께 신약발굴을 주도한 기업 중 하나로 평가했다.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연구결과는 2003년 9월 <네이처(NATURE)>에도 실렸다.

또 바이오텍 분야의 무역잡지로 격주 발행되는 <유전공학뉴스 GEN(Genetic Engineering News)>도 2월1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기업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한국기업으로 SK와 크리스탈지노믹스를 꼽았다.

구조단백질체학을 기반으로 한 신약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그리스탈지노믹스는 2000년 7월 설립된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자본금 16억8000억원에 임직원 42명이 근무하고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네이처에 연구성과를 게재한 뒤 구조기반 신약발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TCAW는 세계적인 신약 기업들과 대등하게 소개해 대외적인 인지도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2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